주요기업, 젠슨 황 회동

최태원 “엔비디아와 함께 미래 AI 인프라 만들어갈 것”

〈SK그룹 회장〉

반도체 등 협력확대 구상 밝혀
SK하이닉스, 메모리 공동개발
SKT, 클라우드 파트너 합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8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SK-엔비디아 협력 언론브리핑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메모리 협력을 넘어 AI 인프라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겠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8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진행한 브리핑에서 엔비디아와의 협력 범위를 그룹 차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최 회장은 “그동안의 협력은 주로 메모리 분야에 집중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SK그룹 차원으로 협력 수준을 높이겠다”며 “엔비디아와 함께 미래 AI 팩토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협력은 SK하이닉스의 차세대 메모리 공동 개발로 이어진다.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는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메모리 기술을 함께 고도화하고 반도체 설계·제조를 가속화하는 장기 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엔비디아의 AI 인프라 로드맵에 맞춰 개발 단계부터 공급 체계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동 개발 대상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슈퍼컴퓨터 베라 루빈과 신규 중앙처리장치(CPU) 베라, AI PC 플랫폼 RTX 스파크, 로봇용 프로세서 젯슨 토르 등이다. AI 슈퍼컴퓨터 중심이던 협력이 CPU와 PC, 로보틱스 플랫폼까지 넓어지면서 SK하이닉스의 메모리 공급 영역도 AI 인프라와 퍼스널 AI, 피지컬 AI 분야로 확장된다.

젠슨 황 CEO는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가장 중요한 메모리 파트너”라며 “SK하이닉스가 없었다면 현재의 AI 산업도 지금과 같은 속도로 성장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는 이제 실제로 활용되고 수익을 창출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며 “모든 국가와 기업이 AI를 활용하게 될 것이고 AI 인프라 구축은 아직 시작 단계”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제조 공정 혁신도 이번 협력에 포함됐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쿠다(CUDA)-X 라이브러리와 피직스네모(PhysicsNeMo)를 활용해 반도체 설계·제조 시뮬레이션을 고도화한다. TCAD(기술 컴퓨터 지원 설계)와 계산 리소그래피 등 개발 과정에 필요한 시뮬레이션 속도와 효율을 높이고 향후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와 시뮬레이션 전반으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율 제조를 위한 디지털 트윈 협력도 추진된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옴니버스(Omniverse)와 오픈USD(OpenUSD)를 활용해 반도체 생산시설을 가상 공간에 구현하고 의사결정 최적화 엔진 cuOpt와 Metropolis 플랫폼을 활용해 공장 내 설비와 자산 운영 효율을 높인다. 양측은 디지털 트윈을 기존 제조 시스템과 AI 기반 업무 프로세스에 연결해 팹 운영 자동화 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그룹 차원의 AI 인프라 구축은 SK텔레콤이 맡는다. 엔비디아 DSX 플랫폼을 기반으로 칩부터 데이터센터 운영까지 아우르는 풀스택 AI 클라우드 협력을 추진하고 AI 작업에 특화된 데이터센터인 AI 팩토리를 2027년 한국에서 먼저 가동할 계획이다. 이후 GW급 인프라로 규모를 키우고 아시아 전역으로 사업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은 엔비디아 클라우드 파트너 프로그램에 합류한다. 블랙웰 GPU 기반 AI 학습·추론 서비스를 시작으로 향후 베라 루빈 플랫폼까지 순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젠슨 황 CEO는 SK텔레콤과의 협력에 대해 “통신 네트워크는 국가 AI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다”며 “사람과 기업, 디바이스를 연결하는 통신망이 AI 클라우드의 근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SK텔레콤은 엔비디아 DSX 플랫폼을 통해 대규모 AI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기업과 산업계에 에이전트 AI, 엔터프라이즈 AI, 피지컬 AI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력은 2년 이상 이어지는 장기 파트너십으로 추진되며 향후 연장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젠슨 황 CEO는 “엔비디아는 이미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메모리를 SK하이닉스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앞으로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며 “AI 인프라 투자는 앞으로 수년간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두산그룹, 피지컬 AI·로보틱스 등 엔비디아 협력 확대

그룹 핵심사업 전반 협력 추진
박정원 회장 “AI 사업기회 모색”

두산그룹이 엔비디아와 손잡고 피지컬 인공지능(AI), 로보틱스, AI 팩토리 분야에서 전방위 협력에 나선다.

두산은 에너지, 전자소재, 로보틱스 등 핵심 사업 전반에 걸쳐 엔비디아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지능형 로보틱스와 에너지 솔루션, 고성능 전자소재 등 두산의 핵심 사업이 엔비디아가 추진하는 AI 팩토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 협력을 추진하게 됐다.

양사는 두산의 제품과 기술 및 제조역량을 엔비디아의 가속 컴퓨팅, 피지컬AI 플랫폼과 연결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두산그룹 박정원 회장은 “두산그룹은 오랜 기간 축적한 제조 역량을 토대로 에너지, 로보틱스, 첨단소재 분야에서 AI시대에 필요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며 “AI팩토리 시대를 맞아 우리 사업 분야에서 AI를 적용하고 사업기회를 모색하는 데 이번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는 “한국은 세계적인 제조업 중심국가로, 세상을 건설하고 이동시키며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업들에게 피지컬 AI는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며 “엔비디아 DSX(통합 AI팩토리 설계 아키텍처)와 피지컬 AI를 두산의 에너지, 로보틱스 및 첨단소재 사업과 결합함으로써, 두산그룹은 지능형 로봇, 자율 산업 장비, 차세대 인프라 등 AI 시대의 핵심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7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KBO리그 KT 위즈 대 두산 베어스의 경기에서 시구 및 시타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삼성전자, 성장성과 나눈다… 한 달간 ‘감사 페스티벌’

‘5년간 5조원 사회 기여 확대’ 첫 실행
제품 구매액 20% 온누리상품권 지급

삼성전자가 성장 성과를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대규모 행사에 들어간다. 제품을 사는 모든 고객에게 구매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한 달간 풀리는 상품권만 4000억원 규모다. 가격 할인 대신 전통시장에서 쓰이는 상품권을 택해 환원 효과를 지역 상권으로 흘려보내는 구조다.

삼성전자는 8일부터 한달 간 전국 온·오프라인 1000여개 매장에서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 삼성전자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이 구매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받는다.

제품 할인 대신 전통시장과 지역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고객 혜택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삼성전자는 소비자 혜택이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효과를 겨냥했다고 설명했다.

행사 참여 범위는 직영 매장을 넘어 다양한 유통 채널로 확대됐다. 전국 400여개 삼성스토어를 비롯해 전자랜드·하이마트 등 가전 양판점과 이마트·코스트코 등 대형마트, 백화점 입점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삼성닷컴과 삼성전자 사업자몰, 네이버쇼핑·쿠팡·11번가 등 주요 온라인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모바일 제품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요금제와 함께 구매한 고객도 대상에 포함된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군인·경찰·소방·교정 공무원 등 ‘K-히어로’ 고객을 위한 특별 혜택도 마련됐다. 기본 제공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20%에 추가 10% 할인을 더해 총 30%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다. K-히어로 고객은 전용 ‘삼성전자 패밀리몰’ 내 특별관 페이지에서 구매하면 된다.

혜택을 받으려는 고객은 9월 30일까지 삼성닷컴을 통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구매처와 주문번호 등 구매 정보를 입력하고 제품 명판 사진과 거래 내역서,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동통신사를 통해 스마트폰·태블릿을 구매한 고객은 해당 단말에서 삼성닷컴 앱으로 신청한다. 이동통신사 개통 제품은 최초 통화 이후 통신사와 개통 일자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신청 완료 후 약 2주 뒤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자 명의의 ‘디지털온누리’ 앱으로 지급된다.

한편, 이번 감사 페스티벌은 삼성전자가 약속한 ‘5년간 5조원 사회 기여 확대’의 첫 실행 계획이다. 삼성전자 사장단은 지난달 27일 2026년 임금·단체협약 최종 타결 직후 공동 메시지를 통해 향후 5년간 총 5조원을 조성해 상생 및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KG모빌리티, ‘무쏘’ 글로벌 론칭 본격화

튀르키예·칠레 등 수출 드라이브

KG 모빌리티(이하 KGM)가 국내 중형 픽업트럭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무쏘’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인다.

KGM은 튀르키예 시장 론칭에 이어 칠레에서 해외 딜러와 인플루언서 등을 초청해 무쏘 글로벌 론칭 행사를 갖고 중남미 수출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일과 5일(현지시간)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칠레와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등 8개국 딜러와 인플루언서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튀르키예에서 31개국 딜러와 기자단을 초청해 진행한 무쏘 글로벌 론칭에 이은 개별 국가별 론칭 행사로, 무쏘의 주행 성능과 승차감 등 차별화된 강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제품 설명과 함께 시승 행사로 진행됐다. /양성운 기자

삼성중공업, LNG선 1척 3855억 수주

상반기 내 상선 수주목표 달성 전망

삼성중공업은 오세아니아 지역 선사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척을 3855억원에 수주했다고 8일 공시했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중공업의 올해 누적 수주 실적은 상선 28척과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저장·하역 설비(FLNG) 1기 등 총 29척, 85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연간 수주 목표 139억달러의 61% 수준이다.

상선 부문 수주 실적은 52억달러로, 연간 목표 57억달러의 91%를 채웠다. 삼성중공업은 상선 부문 목표의 상반기 내 조기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성운 기자